



평양절경축축포발사평양에서진행

## 《조선의 력기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있다》

얼마전 라이에서 진행된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아시아의 수십 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대회참가자수에서 기록적인것으로 된다.

아시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는 머지않아 열리는 청소년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경기를 동반하고있고 2016년 올림픽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될 팀들의 전망을 엿볼수 있는것으로 하여 더우기 관심을 끌었다.

공화국선수들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시작부터 참가팀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회 첫날에 청소년녀자 44kg급경기에 출전한 리성금선수가 추켜올리기에서 세계청소년세계기록을 수립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기 몸무게급에서 모두 앞자리를 차지하여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한편 청년녀자 58kg급경기에 출전한 림은심선수는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 그리고 종횡에서 1등을 하여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성과는 경기마감날에도 계속 이루어졌다. 대회를 마감하는 날 청년녀자 75kg급경기에 출전한 김수정선수는 자기의 특기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하여 공화국선수들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9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밖에도 김효심, 리정송, 리현화, 정춘희, 김영근, 박정주선수들이 17개의 은,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공화국선수들이 대회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성과를 올리자 다른 나라팀 감독들과 조직위원회 성원들은 최근 조선의 력기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있다, 성인급은 현재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이다, 이번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조선선수들의 당찬 모습을 보고 그들의 뒤를 이들 후비들이 그곤하라는것을 느꼈다, 정말 하나같이 육신단다, 조선에서 선수후비육성을 전망성있게 하고있다는것이 알린다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공화국선수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나라의 체육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특색있는 민족악기의 하나인 가야금의 고유한 음색과 음조적특성, 음향형상효과를 주법을 통하여 표현된다.

그러한 가야금의 주법에는 전통적인 주법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탐구도입된 새로운 주법이 있다.

가야금의 전통적인 오른손 주법에는 뜨기, 튕기기, 집기, 미르기 등이 있다.

뜨기는 가야금연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법의 하나로서 소리내는 방법이 간단하고 쉬워서 누구나 인차 터득할수 있다. 오래전부터 전래하고 이 주법은 그 소리가 맑고 우아하여 민요는 물론 현시기 우리 겨레가 좋아하는 민요풍의 노래, 현실주의적의 다양한 음악을 원만히 연주할수 있게 한다.

또한 튕기기는 연주방법과 소리색같이 독특할뿐아니라 탄력있고 약동적이며 속도감이 있게 음악형상을 할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집기는 오른손손가락으로 아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소리를 뽐내고 떠서 내어 말그대로 《둥기당》하는 소리가 나도록 연주하는것이다. 예로부터 가야금소리를 누구나 《둥기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집기로 내는 소리이다.

미르기는 선률진행방향에 아래로 향하는 대목에서 쓰이는 주법으로서 독특한 소리색감을 얻을수 있게 한다.

가야금의 전통적인 왼손주법에는 톰음, 깔소리, 미분음이 있다. 톰음, 깔소리, 미분음을 통틀어 톰현이라고 한다. 가야금의 전통적인 수법과 교습의 요긴한 대목에서 기본은 톰현이다. 가야금연주에서 톰음, 깔소리, 미분음을 조화롭게 배합하면 그 어느 악기보다 음향형상효과가 풍부하다. 톰음이나 깔소리를 강하게 혹은 약하게, 빠르게 혹은 느리게 선률의 요긴한 대목에서 빛이 나게 쓰면 민족적 정서를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는 새로운 음악형상 창조할수 있다.

본사기자

## 전통적인 가야금연주법 몇가지

##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일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기념특강을 진행합니다.

강의제목: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82년은 수령결사옹위로

주체혁명의 명맥을 이어온 자랑스런 력사

강의날자: 주제103(2014)년 4월 24일

강의시간: 1강의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성동리 다라니석강

다라니석당이라는것은 불교경전인 《다라니경》문을 기둥돌기엔 전체에 새겨서 세운 사찰의 돌시설물을 말한다.

고려시기에 다라니석당을 많이 세웠다. 일반적으로 다라니석당은 바닥돌, 받침돌, 기둥돌, 지붕머리돌 등으로 이루어졌다. 기둥돌의 자름면은 6각형 또는 8각형이다. 평양과 개성, 해주, 괴현 등지에서 다라니석당들이 발굴되었다.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성동리 다라니석당은 평안북도 피현군 성동리 옛읍성(봉두성)의 동문터에서 성안 오른쪽 200m지점에 있던것을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것이다. 이 석당은 고려시기의것으로서 1027년에 세운것이라고 한다. 비문이 있던 곳에는 원래 불장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오랜 세월을 흘러오면서 지금은 성동리 다라니석당만 남았다. 후에 민족문화유산들이 많은 묘향산에 이 석당이 옮겨져 국보로 보존되고있다.

성동리 다라니석당은 맨 밑에 두단의 바닥돌이 있고 그 위로 받침돌, 몸돌, 세층의 지붕돌이 차례로 놓이고 맨 위에 보주가 있다.

석당의 높이는 6.23m이

다. 석당의 형태는 자연석으로 된 맨 밑의 바닥돌 한단과 지붕돌, 들쭉층의 몸돌, 보루를 내놓고는 모두 그 평면이 6각형으로 되어있다. 석당은 아래로 두층의 바닥돌로 되어있다. 두께 50cm가량의 자연석을 네모나게 깔고 그위에 높이 21cm 되는 6각형의 판돌을 놓아 두겹으로 된 바닥돌은 옷바닥돌 한번의 길이가 1.33m이다. 바닥돌우에는 받침대가 놓여있다. 받침대는 탐의 밑단과 맞먹는것인데 그 생김새가 좀 다르다.

받침대는 밑돌과 가운데돌, 갑돌로 이루어졌다. 밑돌은 매 면마다 큼직하게 뿔뿔 오목이를 새겼다. 그리고 밑돌웃면에는 얇아놓은 모양의 뿔뿔이를 등직하게 새겼다. 받침대의 가운데돌 매면에는 사자를 둔 우새겼는데 어찌나 생동한지 이것은 고려시기 사자조각가운데서 으뜸가는것의 하나로

되고있다.

받침대우에는 6각형의 석당 몸돌을 세웠다. 몸돌에는 전면에 걸쳐 불경을 새겼다. 그 글자수는 정면의 《대불정다라니당》이라고 쓴 제목 외에 2388자나 된다.

이 석당은 조형적구성과 조각수법이 통일된 조화를 이룬 매우 훌륭한 문화유적으로 평가되고있다. 성동리 다라니석당은 지금 남아있는 다라니석당가운데서 으뜸이며 당시 우리 겨레의 훌륭한 돌다루기 솜씨를 잘 보여준다.

본사기자



일반적으로 봄철에는 위 및 십이지장장애, 만성표출성위염, 역류성식도염, 약물성간장장애를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중에서 위 및 십이지장장애환자들은 그 어느 계절에 비해 이 시기에 더욱 많다.

이것은 계절별위액분비동태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 연구집단이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절별위액검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계절에 맞는 새로운 음악형상이라는 기본이자들이 봄철에는 여름철에 비해 몇배나

더 많았다.

다른 계절과 달리 봄철에 소화기질환이 많은 이유는 감기약과 진통제의 람용 및 지속적인 사용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기온차이 등으로 인한 여

## 봄철과 소화기질환

러가지 조건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봄철에 감기약과 진통제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약들은 식도와 위점막 등에 미란 또는 궤양이 쉽게 생기게 할수있다.

봄철에 소화기질환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다시마를 섭

취하는것이 좋다. 다시마에는 궤양치료에 좋은 성분들이 아주 많다. 다시마를 여러 시간동안 우려 후에 그 물을 자주 끓여마시면 궤양을 예방할수 있다.

위장관에 손상을 줄수 있는 아스피린, 젤론, 에스트로겐 등과 같은 약을 심중히 써야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흡연 등이 소화기질환을 더 악화시킨다는것을 잘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박사 리영은

## 사화

## 산 당 화 (4)

글 전철호, 그림 김윤일

《에익, 밤통같은 자식들, 짝소리도 못쳐보고 똥지다니. 어젠 내가 개성서 온 왜병 흰을 귀신도 모르게 강을 건너보냈는데 아, 글썽 얼마 못 가서 몽땅 물살당했다는 거야. 사이포가 불맛은 호랑이처럼 펄펄 뛰며 내 배를 가르겠다는걸 겨우 빠져나왔어. 어휴-》

《아니- 그렇게 우는 소리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는 소리도 오늘이 마지막인지 모르겠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요?》

《사이포가 나보고 매일 모레 새벽에 왜군의 길잡이로 연안까지 가라누만. 이러다 두칼에 맞아죽을것같아.》

《왜 두칼에 맞아죽는다고 그러시우? 이런 때 머리를 써야 해요. 머리를!》

《머리라니?》

《과연 코막고 답답하시우다. 아, 그 이쁜이가 있지 않아요?》

《이쁜이라니?》

《에그, 참말 안타깝게비

니까. 이런 때 고년을 녀름바치면 똥걸.》

《그렇지! 내가 왜 그걸 까맣게 잊고있었을까. 그래서 사이포가 날 개다루듯 했구나. 가만 이쁜이가 《통산왕관》을 알고있더라?》

《아다마다요. 왕눈같이 고년이 지은 밤을 먹고 갓으니까.》

《그렇다면... 음, 내가 독사를 기르고있었구나.》

《건 똥 녀름두에 두고 하는말이지우?》

《애꾸가 잡히기 전에 보 내은 글썽을 보니까 창우놈이 나를 저버리고 의병한테 붙었대. 그런즉 창우놈이자 이쁜이년이니까. 그 쌍년이지 우리 간을 뽑았어.》

《아이고, 그 배라먹을년을 그저.》

《내 피에 내가 빠지다니. 이쁜이년이 내 주위를 맴돌면서 날날이 내 속을 넘겨보았어. 사공명감도 다 한배속이야. 가난뱅이 쌍둥들이 갈 길이란 뻔한데 내가 그걸 잊고 그놈들을 써먹자는 꿈

꾸다니. 제길할.》

이쁜은 악에 받쳐 떠들어대는 저 년놈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죽을까지도 각오하고 나신 이 길인데 저쩌한 발광질에 겁을 먹었다.

이쁜은 눈썹 하나 까딱치 않고 울것이 드디어 오고있다고 여기며 천연스럽게 단장을 넘겼다. 그는 내똥만 적정을 배사공포인한테 급히 알려주려고려서 한기슭의 그 《가래나무집》으로 출달음을 쳤다....

이들후 개성에 등지를 틀었던 사이포왜장의 부하 백수십명이 밤을 도와 벽란나루로 강을 건너고 연안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던중 배천의 치악산근처에서 전멸되었다. 단 한놈도 살아돌아오지 못했다.

이쁜에게서 놈들의 흉계를 전해들은 사공로인이 그 밤으로 연안성에 알려주었고 창우를 비롯한 의병들이 길을 지키고 사이포의 왜놈부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이었다....

인적이 말라버린 벽란도의 선창에 매생이 한척이 물우에서 호느적거리고있었다.

끼르륵- 끼르륵- 갈매기 한마리가 한척한 나무가를 위로 배회하며 느닷없이 울어댔다.

《이쁜아, 어서 가자구.》

황백치는 백씨가 아침상을 내려가자 이우시개를 입에 물은채로 이쁜을 떠밀고 집을 나섰다.

생각같아서는 당장 이쁜이를 란장치고싶었다. 떠밀갈에 늑다리사공령감이 바탈같이 사라지고 런이여 강을 건너간 왜군이 물살된것을 보면 이것도 다 이쁜이년 작간이다. 도대체 천한 종년이 무엇을 믿기에 저 죽을줄 모르고 불속에 뛰어들자고 할가. 황백치는 이런 의문을 풀지 못한채 매생이우로 이쁜을 떠막칠졌다.

《이쁜이, 우리도 오늘 실컷 배늘이를 하자는거야.》

황백치가 이죽거리며 샅대질을 하자 매생이는 썰물을 타고 저절로 개골에서 빠져나와 강기슭을 따라서 떠내려갔다. 황백치는 개기름이 철철 흐르는 얼굴에 비양기를 짓고서 너가졌다.

《하늘이 푸르니 내 마음

도 기쁘구나. 이런 좋은 날에 시를 모른다면야 어찌 사도람이라고 할가. 한번 들어보겠니?》

황백치는 제법 식자인척하며 시를 읊었다.

아름다운 강산은 너무도 황홀하여  
값을 치를수 없는데 물고기 풍년들고  
조수일고 거기에다 바람새 순란하니



쪽배는 저절로 앞으로만 달리네

《이쁜이, 어때 듣기 좋지? 고려말년에 《삼은》의

황백치는 레성강에서 저서북으로 한라배 뺀어나간 후강이 갈라보이는 물살 세찬 벼랑앞에서 닳을던졌다.

《사이포에게 이쁜을 고스란히 넘겨바칠순 없어. 난 속매이 아니니까. 난 너의 깨끗한 몸통이에 흠랑칠을 잔뜩 해줄테다. 호호.》

《이예, 내가 널 왜 이인척없는 절벽앞으로 데리고 나갔는지 알고싶겠지. 그건...》

《마음과 함께 몸까지 다바치라 그 소리겠지요?》

이쁜은 어떻게 자기가 이런 말을 눈썹 하나 까딱치 않고 활쫓듯 하였는지 놀라기만 하였다.

《어떻?...》

황백치가 더 놀라와했다. 언제 한번 말대답을 한적이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무엇이든 고분고분 잘만 들었던 이쁜이 도고하다 할 정도로 그 예쁜 얼굴을 땃땃하게 쳐들고 상전의 말을 중도에서 자르고 제 할소리를 하더니.

그런 태도에 더 혹했는지 황백치는 불의에 이쁜의 허리를 끌어잡고 이죽거렸다.

《상전의 뜻을 알고있으면 어서.》

매생이가 뒤집힐듯 기우뚱거렸다. 이쁜이 이쁜은 눈썹을 흘리는 황백치의 굵은 허리를 얼싸안았다.